

최근 3년간 화재 사망자 발생 추이 분석

최근 3년간 화재 사망자 분석을 통하여 유사시 초기진화·피난 및 대피방법
·초기대응 유의사항 등 홍보를 통해 화재 사망자 저감에 기여하고자 함

최근 3년간 화재 사망자 발생 추이 분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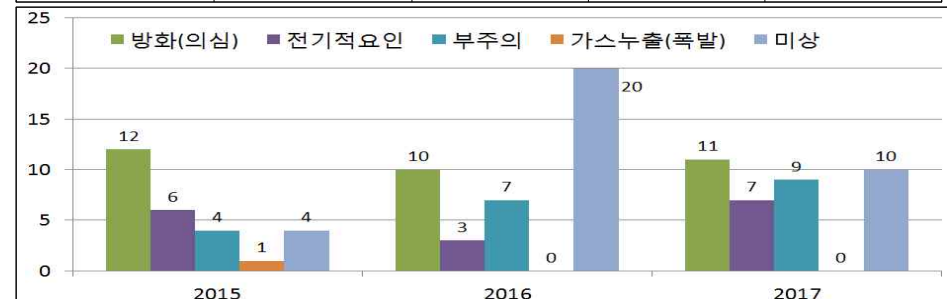
□ 최근 3년간 화재 발생 현황

구분 연도별	화재건수 (건)	인명피해(명)			재산피해 (백만원)
		계	사망	부상	
계	18,342	807	104	703	43,788
2015년	5,921	249	27	222	14,337
2016년	6,443	276	40	236	14,122
2017년	5,978	282	37	245	15,329

□ 유형별 화재 사망자 발생 현황

○ 발화요인별 현황

발화요인	계	2015년	2016년	2017년
계	104	27	40	37
방화(의심)	33(31.7%)	12(44.4%)	10(25%)	11(29.7 %)
부주의	20(19.2%)	4(14.8%)	7(17.5%)	9(24.3%)
전기적 요인	16(15.4%)	6(22.2%)	3(7.5%)	7(18.9%)
가스누출(폭발)	1(1%)	1(3.7%)	-	-
미상	34(32.7%)	4(14.8%)	20(50%)	10(27%)



2018. 1.

서울소방재난본부
[현장대응단]

○ 발화장소별 현황

구분	계	2015년	2016년	2017년
계	104	27	40	37
주거시설	79	25	31	23
작업장	6	-	3	3
숙박시설	4	1	-	3
일상서비스	3	-	-	3
일반업무	2	-	1	1
기타건축물	2	-	2	-
야외	2	-	2	-
음식점	1	-	1	-
자동차	1	1	-	-
판매시설	1	-	-	1
도로	1	-	-	1
위험물제조소	1	-	-	1
오락시설	1	-	-	1

※ 주거형태 : 단독주택 43명(54.4%), 공동주택 34명(43%), 기타 2명(2.5%)

○ 계절별 현황

구분	계	2015년	2016년	2017년
계	104	27	40	37
봄	29 (27.9%)	5	10	14
여름	12 (11.5%)	3	5	4
가을	27 (26.0%)	7	13	7
겨울	36 (34.6%)	12	12	12

○ 연령대별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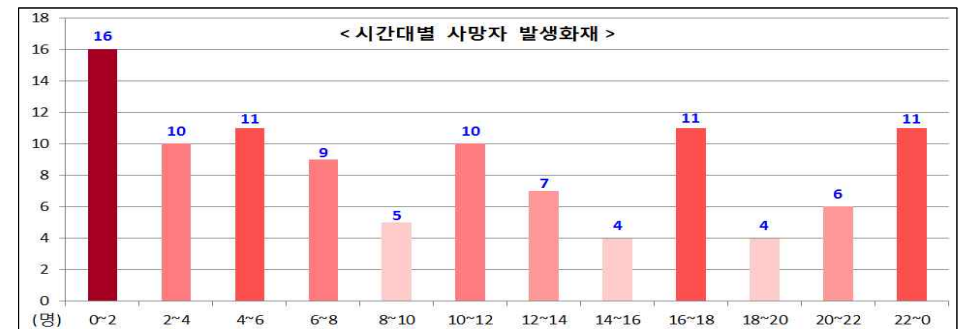
구분	계	0~10	11~20	21~30	31~40	41~50	51~60	61~70	71~80	81~90	91이상
계	104	1	4	8	8	17	29	14	15	7	1
2015년	27	0	1	4	1	5	7	4	2	3	0
2016년	40	0	3	3	4	8	10	3	6	2	1
2017년	37	1	0	1	3	4	12	7	7	2	0

○ 사망원인별 현황

구분	계	2015년	2016년	2017년
계	104	27	40	37
연기,유독가스흡입 및 화상	54	12	22	20
연기,유독가스흡입	22	5	10	7
화상	17	6	5	6
피난 중 뛰어내림	5	1	3	1
복합원인	3	1	-	2
넘어지거나 미끄러짐	1	1	-	-
기타	1	-	-	1
미상	1	1	-	-

○ 시간대별 현황

시간	0~2	2~4	4~6	6~8	8~10	10~12	12~14	14~16	16~18	18~20	20~22	22~24
계	16	10	11	9	5	10	7	4	11	4	6	11
2015년	27	6	0	1	2	1	2	4	0	6	0	4
2016년	40	7	5	5	5	1	2	1	3	1	2	1
2017년	37	3	5	5	2	3	6	2	1	4	2	1



○ 사망 전 상태 및 행동분석

- 사망 전 상태 : 수면중 38명(36.5%), 음주상태 22명(21.2%), 지체장애 및 정신장애 13명(12.5%) 순으로 발생함.
- 행동분석 : 피난 중 28명(26.9%), 거동불편 14명(13.5%), 화재진압 중 3명(2.9%) 순으로 발생함.

□ 사망자 발생 추이 분석

- 방화(방화의심)에 의한 화재로 33명(31.7%)이 사망하였고, 부주의 20명(19.2%), 전기적 요인 16명(15.4%) 순으로 발생함
- 주거시설에서 79명(76%)이 사망하였고, 작업장 6명(5.8%), 숙박시설 4명(3.8%) 순으로 발생하였으며, 주거시설 중 단독주택 43명(54.4%), 공동주택 34명(43%)이 사망함
- 전기장판 및 전열기 사용이 가장 많은 겨울철에 36명(34.6%)이 사망하였고, 봄 29명(27.9%), 가을 27명(26%) 순으로 발생함
- 51~60세 29명(27.9%), 41~50세 17명(16.3%), 71~80세 15명(14.4%), 61~70세 14명(13.5%) 순으로 연령대가 비교적 높은 직군(51~80세)에서 56명(53.8%)이 사망함
- 연기·유독가스 흡입 및 화상 54명(51.9%), 연기·유독가스 흡입 22명(21.2%), 화상 17명(16.3%) 순으로 발생함
- 수면 및 음주 등에 의한 화재인지가 늦은 취약시간대(22~06시)에 48명(46.2%)이 사망함
- 사망 전 수면이나 음주상태로 60명(57.7%)이 사망하였고, 피난 및 거동불편으로 정상적인 피난행동이 곤란하여 42명(40.4%)이 사망함.

□ 사망자 저감 대책(홍보방안)

- (초기 대응적인 측면)
 - 화염이 벽면으로 연소 확대되는 경우 무리한 초기진화는 피하고, 화재 목격 즉시 피난 및 대피유도와 119 신고
 - ※ 우리나라의 도배문화 특성상 주거시설의 경우 벽면(벽지 및 단열재)을 통하여 급격하게 연소확대 (초기진화 실패 및 피난곤란 ⇒ 사망)
 - 화재 발생 시 연기배출(환기)를 위해 창문 또는 출입문을 개방하는 행위 금지
 - ※ 원활한 산소공급으로 인하여 급격한 연소확대 (대피로 차단 ⇒ 사망)

- 대피할 때에는 반드시 방문 및 현관문(방화문)을 닫고 대피
 - ※ 상층부로의 연기(농연) 및 화염 확산 경로 제공 (대형 인명피해 발생 우려)

○ (예방적인 측면)

- 주택 내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 지속 설치
- 아파트 화재감지기 설치기준 개선 : 열감지기 ⇒ 연기감지기
 - ⇒ 소방 관련법 개정건의 또는 단독경보형감지기 추가(거실) 설치 권장
 - ※ 취약시간대 화재 인지가 늦어 사망자 발생 비율이 높게 나타남(46.2%)
 - ※ 최근 3년간 아파트의 경우 15개 대상에서 21명 사망자 발생(방화에 의한 화재 사망자는 3명으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초기 감지시스템 구축 필요)
- 홀몸노인 및 노령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시스템 강화
 - ⇒ 겨울철 전기장판, 전열기 등 사용실태 점검 서비스, 기초소방시설 작동점검 서비스, 위기상황판단능력 향상 교육 실시 등
 - ※ 노령(60세 이상) 사망자가 39명(37.5%)이 발생함